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 669

K-water가 새로운 물의 시대를 향한 新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상에 행복을 내놓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호



내소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69

2023년 12월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으로
힘차게 흐르겠습니다.



#아듀2023



#kwater신경영선포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신경영선포를 검색하고 <#kwater신경영선포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신경영선포를 검색 → <#kwater신경영선포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접수 마감일 12월 20일
선물 발송일 1월 10일경

※ 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新경영선포



#새로운물의시대



#ESGPartner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3. 12 | Vol. 669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통 권 669호
 편 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8 제로여행
 천년고찰에서 시작해
 황금빛 바다에 닿다, 전북 변산

14 제로픽
 해 지는 풍경 속 펼쳐지는
 에코 여행

16 제로라이프
 열두 달 환경기념일 캘린더

18 사람이 애쓰지(ESG)
 100만 자료 기록한 기후위기 시대
 박상욱 기자

22 지구보고서
 '내일'이 아닌
 '내 일'인 워터리스크!

24 친환경 지구여행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에코 시티 남아공 케이프타운

28 두잇두잇
 K-water 탁구선수단
 국가대표 박강현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

30 건강처방전
 철 있는 독감의 행방

32 수(水)타백스가 간다
 대구시의 유일한 다목적댐으로 거듭나다
 군위댐지사



36 K-water의 2023년을 돌아보다
 Adieu 2023!

38 K-water 리포트
 새로운 물의 시대를 향해
 K-water號가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44 올해의 K-water人
 "내 인생 최고의 날! K-water 만세,
 사장님 만세, 박미자 만세"

46 K-water ESG
 'ESG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 장벽, 함께 넘어요'
 Your True ESG Partner K-water

48 어느 멋진 날
 프레임에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셀프 사진관 촬영기

52 마음상담소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로 가득 찬 내 마음 돌보기

54 오프챌린지
 유행 따라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 OFF



55 이슈체크
 재미있으면 비싸도 괜찮아,
 펀플레이션

56 K-water 포커스 ①
 아시아를 넘어 UN으로
 '글로벌 물문제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다'

58 K-water 포커스 ②
 방울아 반가워!

60 K-water News

62 수놓은 문화

64 챌린지 릴레이

66 K-water SNS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도 번역을 지원합니다.



천년고찰에서 시작해
황금빛 바다에 닿다

전북 변산

겨울이면 소리 없이 바다 위로, 내소사 지붕 위로, 전나무 숲길 사이로 사뻏히 눈이 내려앉는다. 고요한 변산반도의 바닷길을 메우는 소리는 힘차게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뿐일 것. 수천 년 세월이 만든 깎아지른 오묘한 해안절벽과 천년의 시간이 고인 전나무 숲길 속의 사찰에서 만난 자연의 숭고함. 겨울의 맛을 간직한 변산 여행 속으로

글 사진 최갑수(여행작가) 일러스트 이신혜





내소사



전나무 숲길



고졸한 맛의 천년고찰로 가는 길

서울에서 부안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창밖으로 겨울의 스산한 겨울 풍경이 스친다. 서울을 벗어나자 눈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세 시간 남짓 달렸을까. 어느덧 차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졸포를 경유해 내소사 방향으로 가는 군내버스를 탈 수 있다. 내소사까지는 약 50분 정도가 걸린다. 내소사 가는 길에 내리던 싸락눈은 어느새 함박눈으로 바뀌었다. 차창으로 스치는 눈송이가 탐스러워 숨뭉치 같기도, 솜

사탕 같기도 하다. 내소사는 633년(백제 무왕 34년) '해구 두타'라는 여승이 창건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중건·중수를 거듭하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기도 했다. 이후로 조선 인조 때 청민선사가 중창했고, 인조 11년(1633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웅보전을 중건했다. 내소사는 관음봉(433m) 아래에 위치해 있다. 관음봉을 일명 '능가산'이라고 부르는 까닭에 능가산 내소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래 이름은 소래사(蘇來寺)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히는 내소사

눈이 내리면 내소사 가는 길 앞 전나무 숲길 바닥은 온통 하얗게 물든다. 내소사에 가려면 전나무 숲길을 꼭 거쳐야 한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내소사를 복구하면서 절에 이르는 길이 너무 험해 전나무를 심으면서 울창해졌는데, 지금은 사찰보다 더 유명해졌다. 눈 내린 내소사는 절경 그 자체다.

내소사 전나무 숲은 월정사, 광릉 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힌다. 월정사 숲길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이라면, 내소사 앞 숲길은 나무들이 자연스레 심겨 있어 더욱 푸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30~40m 높이의 아름드리 전나무들은 사찰 앞까지 600여 m로 이어진다. 숨을 크게 들이쉬니 전나무 특유의 맑은 향 내음이 몸 깊숙한 곳까지 스민다. 전나무 숲을 나와 사천왕문을 지나면 사찰 경내에 든다. 경내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느티나무는 천 년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내소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졸한 멋을 풍긴다. 대웅보전은 못하나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끼워 맞춰 지었다. 특히 정면에 여덟 짝의 꽃무늬 문살은 꽃잎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하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색은 모두 지워져 채색 없이 말간 나뭇결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보는 이로 하여금 경건함을 자아내게 한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템플스테이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내소사는 트레킹 템플스테이로 유명하다. 사찰에 머물면서 산과 계곡을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프로그램이다. 내소사를 출발해 직소폭포, 제백이 고개, 관음봉 삼거리, 전나무 숲을 거쳐 다시 사

찰로 돌아오는 코스다. 트레킹 템플스테이가 부담스럽다면 휴식형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벽 예불과 공양만 참여하고 자유롭게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다. 바람 지나가는 소리, 나뭇잎이 구르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까지 또렷이 들리는 경험이 펼쳐진다.

눈 내리는 채석강, 백합탕 맑은 국물을 훌쩍이며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소동파는 중국 황주의 아름다운 적벽강 풍경에 반해 이 같은 시를 남겼다.

'임술 초가를 열었날에 나는 손님과 배를 띄우고 적벽의 아래에서 노닐었다.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도 일지 않는데 술잔을 들어서 손님에게 권하며 명월의 시를 읊조리며 요조의 장을 노래했다.'

당나라의 시인 이태백은 채석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물에 뛰어들었다가 삶을 마감했다. 적벽강과 채석강, 두 곳 모두 당대 최고의 시인의 마음을 훌쩍 빼앗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부안의 적벽강과 채석강은 중국의 적벽강과 채석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쏙 빼닮았다고 해서 똑같은 이름이 붙었다.

적벽강은 각양각색의 바위들이 해안가에 서 있는 해안절벽 지대다. 추황빛 노을을 받아 물들기 시작하면 암석들은 낮과는 다른 신비로운 모습을 자아낸다. 이러한 이유로 해 질 녘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며 부안에서 해넘이 명소로 불린다. 적벽강에서 약간 떨어진 채석강은 변산반도 서쪽 끝에 1.5km가량 이어진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변산 이모저모



모항어촌체험마을

모항 마을은 10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낮은 집들이 정담을 나누듯 마주하고 있다.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바다 위로 눈이 내리는 모항 풍경도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하다.

☞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길 107





또 다른 해안 절벽으로,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그 오른쪽 닭이봉 일대의 층암절벽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기저층은 화강암과 편마암이고, 약 7천만 년 전이었던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한 절벽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듯 와층을 이루고 있다. 기기묘묘한 모습은 자연의 신비한 섭리를 한껏 일깨워 준다. 채석강 앞에는 격포항이 있다. 격포항에 간다면 백합탕을 내놓는 식당을 많이 볼 수 있다. 백합은 발이 빠지지 않는 단단한 펄에서 자라는데, 향긋하고 단내가 깊다. 부안 백합은 조선시대 궁궐에까지 진상해 오래전부터 유명했다. 백합 하나를 건져 초고추장에 살짝 찍으면 향긋한 냄새가 입 안 가득 퍼진다. 보글보글 말갈게 끓어오르는 백합탕에 겨울 추위가 오히려 고마워진다.

아름다운 겨울 드라이브길

변산반도를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30번 국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외변산을 아우르는 이 길은 부안에서 새만금, 대항리를 거쳐 채석강, 격포, 모항, 곰소로 이어진다. 저녁노을에 붉게 물든 어촌과 해변, 갯바위와 포구, 바다 물결에 맞춰 출렁이는 어선들... 심 없이 펼쳐지는 풍광이 가슴을 짱하게 만든다. 길을 따라 채석강과 내소사를 지나면 길은 모항에 닿는다. 30번 해안도로는 변산반도를 일주하는데, 서해안에서도 아름답기가 으뜸이다. 오른쪽으로 해변을 끼고 굽이치는 이 길은 눈길 주는 곳마다 고즈넉한 포구와 기암절벽, 아늑한 해변이 마술을 부리듯 나타났

다 사라진다. 모항을 빠져나와 계속 30번 국도를 따르면 진서면에 자리한 곰소항에 닿는다. 변산반도와 선운산 사이로 깊숙이 파고든 곰소만(줄포만)을 끼고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곰소하면 젓갈을 떠올린다. 변산반도 근해에서 어획되는 어류에 곰소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뿌려 만든다. 이곳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짠맛보다 단맛이 강해 고급으로 대접받고 있다. 곰소항 제방을 따라 젓갈 가게가 늘어서다. 가게마다 시식대를 마련해 맛을 볼 수도 있다. 다른 재료를 섞지 않고 자연 발효와 오랜 숙성을 거쳐 탄생하는 젓갈은 다른 지역의 젓갈에 비해 감칠맛이 빼어나다. 젓갈 정식을 내는 식당들도 몰려 있는데, 1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푸짐한 상을 받을 수 있다. 곰소항 옆이 바로 곰소염전이다. 겨울철에는 영롱한 소금 결정체 대신 새하얀 눈이 쌓여 있다.

곰소항 어느 허름한 백반집에 앉아 젓갈 정식을 한 상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김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젓갈이 앞에 가득 놓여있다. 수북한 밥 위에 새빨간 젓갈을 한 젓가락 올렸다. 창밖에는 눈이 펄펄 내린다. 두 가지 색의 대비가 어찌나 낭만적인지. 눈이 수북이 쌓이면 돌아가는 길이야 좀 험난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펼쳐진 이 고요한 겨울의 낭만을 즐겨본다.



변산마실길

2009년 10월, 변산반도를 따라 걷는 17.5km의 길이 처음 열리면서 만들어졌다. 시작점은 새만금전시관이다. 시작점에서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이내 고사포 해변이 나온다. 백사장의 길이가 2km에 달하는 커다란 해수욕장이다. 고사포 해변을 빠져나오면 해안초소길을 따라 이어지고 이내 적벽강에 도착한다.

☞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찾아가GO, 체험하GO
수천 년의 자연이 빚은 보물, 변산 여행 스폿

www.kwater.or.kr/for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에코스텝 1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절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된 테마파크다. VR, AR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놀이, 체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공간이 펼쳐진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에코스텝 2 (줄포만 노을빛 정원)
1996년에서 1999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된 곳으로, 바닷물로부터 줄포사기지의 침수방지를 위해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이다. 해국, 찔레꽃, 바다강아지풀, 갈대, 나문재, 함초, 바다잔디 등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이 보존되고 있다.

해 지는 풍경 속 펼쳐지는 에코 여행

가는 해를 뒤로 하고 오는 해를 새로이 맞는 이때, 서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변산반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에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글. 김영은 사진.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안권지사



©김경옥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된 부안의 섬

고즈넉한 섬 마을의 자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계화도. 영화 '실미도'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본래 내륙과 완전히 동 떨어진 섬이었다. 그러다 1963년에 이루어진 간척사업을 기반으로 간척지가 조성되었고 지금은 버스로 왕래할 수 있다. 섬에서 육지가 된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계화도라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부안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 '계화미'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름이다. 일출 명소로 알려진 만큼

오전이면 계화산에서 일출을 보고 내려온 이들로 북적이고 백합죽, 백합국 등의 아침 식사를 위해 문을 여는 식당들로 분주하다. 계화산에 오르지 않아도 곳곳에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이나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포토존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빼곡히 수놓은 소나무가 일렬로 줄지어 있고 소나무 너머로 해가 떠오른다.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전국에서 사진가들이 몰려들곤 한다.

계화도 주소 전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1 | 09:00 a.m

2 | 14:00 p.m



부안댐 물문화관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부안댐로 290
전화 063-580-3273
운영시간 평일(10:00~17:00), 휴관일(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전국 유일!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물문화관

높이 50m, 길이 282m의 다목적댐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한 부안댐. 이곳 부안댐 광장에 부안댐 물문화관이 있다. 쾌청한 국립공원의 피톤치드를 몸소 느끼며 방문한 물문화관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전시실 및 영상실 등이 있다. 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의 물을 주제로 한 전시관, 물로 인해 만들어진 부안의 신비로운 자연물과 수중, 수변 생태계를 보여준다. 부안댐은 차로 댐까지 올라갈 수 없고 주차장에서 도보로 걸어 올라가야 한다. 공원 안쪽으로 난 길을 걸어 오르다 보면 부안호(변산호)의 절경이 나타난다. 부안댐이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남서부 산악지인 내변산 중계계곡에 있는 만큼 부안호의 주변 풍광 또한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변산마실길 따라 만난 해넘이 명소

변산반도에는 총 다섯 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그 중 격포해수욕장은 겹겹이 쌓인 퇴적층이 아름다운 체석강과 적벽강 사이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좋다. 또한 변산마실길 3코스에 포함되어 잠시 들러 겨울 바다의 낭만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하얗게 수놓인 백사장 길이는 약 500m.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아 물이 맑은 것이 특징이다.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여름이면 해수욕과 액티비티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얀 백사장 너머 숲속은 울창하고 아늑한 느낌을 자아낸다. 겨울이 되면 이곳은 해넘이 장소로 유명세를 치른다. 해넘이 광장에는 낙조의 유래가 새겨진 해넘이 채화대가 있고, 이곳 광장에는 매해 해넘이를 보고자 하는 이들로 붐빈다. 좀 더 드라마틱한 경험을 원한다면 격포해수욕장 사이의 산 정상인 닭이봉에 올라보자. 85.7m의 닭이봉 위에 서면 위도섬과 격포 일대 주변 관광지, 서해 낙조 등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해넘이 채화대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47-1

3 | 17:00 p.m



©이범수



지난 11월 20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5도까지 올라, 인간이 살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요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환경기념일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에 동참해 보자.

글. 문수민

열두 달 환경기념일 캘린더

☆ ☆ 주요 환경기념일 알아보기



세계 물의 날
World Water Day



'세계 물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날이다.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제정·선포하였으며,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회의, 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 여러가지 수자원 관련 행사가 세계 물의 날에 열리고 있다.



지구의 날
Earth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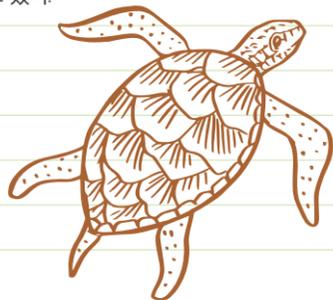
지구의 날은 환경 보호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기념일이다. 1970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소등 행사를 진행하며 '지구의 날'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의 날'은 지난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및 개발 정상회의(UNCED)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틀과 원칙을 제정한 것이다.



매년 6월 5일은 1972년의 'UN 인간환경회의'의 개막일을 기념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환경의 날'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부터 매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정하고 대륙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세계 환경의 날
World Environment Day



에너지의 날
Energy Day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그 해 최대 전력 소비(47,385MW)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이듬해인 2004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제정했다. 이후로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 동시 소등, 낮 2시부터 1시간 동안 에어컨 설정 온도 2℃ 올리기 등 상징적인 실천 행동으로 전 국민 참여의 절전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환경기념일 캘린더

1월 26일 세계 환경 교육의 날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4월 4일 종이 안 쓰는 날 22일 지구의 날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6월 3일 세계 자전거의 날 5일 세계 환경의 날 8일 세계 해양의 날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8월 22일 에너지의 날
9월 7일 푸른하늘의 날 22일 세계 차 없는 날 29일 음식물 쓰레기의 날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 	11월 6일 환경 착취 국제 예방의 날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 11일 국제 산의 날

100만 자로 기록한 기후위기 시대

박상욱 기자



JTBC 보도국 정책부의 박상욱 기사는 2022년 8월부터 K-water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지구보고서' 칼럼을 연재해 왔다. 기후위기와 그로 인해 빚어지는 지구의 위기를 꾸준히 연재해온 박상욱 기자. 개인이 연재해오던 온라인 칼럼 [박상욱의 기후 1.5]도 마침 4주년을 맞았다. 매주 글을 올렸으니 200주 넘게 연재를 해온 셈이다. 온라인 칼럼만 해도 기사마다 5~6천자에 이르고, 모두 합하면 지금까지 총 100만 자가 넘는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그의 꾸준한 기사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글: 김영은 사진: 김은주



66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남기는 것뿐입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나왔으면, 그 이야기를 접한 누군가가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고민해 봤으면, 그래서 이 어젠다가 더 이상 '변두리 어젠다'나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내일의 일, 내 일'로 여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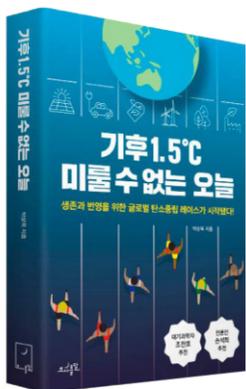
99

기자로서, 아버로서 마주한 기후위기의 시대

극한의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우리는 올해 다양한 형태의 기후위기를 직면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 등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사실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를 꾸준히 고발하고 있는 기자가 있다. 바로 JTBC 보도국 정책부의 박상욱 기자다.

“JTBC 입사 전인 2010년, 주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모로코의 개항이나 정세, 관영매체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고하고, 영사업무를 보조했죠. 당시 모로코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드넓은 사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를 지중해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 스페인으로 송전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때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그저 명절마다 시골 가는 길 주택 옥상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열 설비를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안 그래도 생소한 발전 방식인데, 해저 케이블로 다른 나라에 전력을 보낸다니...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에너지전환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JTBC에 입사한 박상욱 기자는 순환보직을 거치며 겨울 폭풍 노리스터, 유럽 폭염, 파리협정과 송도 IPCC 총회(본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빅 이벤트를 취재하게 된다. 그러다 첫 아이가 태어났고, 이후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박상욱 기자. 이는 곧 기자로서, 아버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1. 박상욱 기자의 그간의 연재를 엮은 책 <기후 1.5℃ 미룰 수 없는 오늘>

4년이라는 시간, 100만 자의 기록

박상욱 기자는 지난해 8월부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지구보고서' 코너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다루며,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리서치를 통해 연재를 이어왔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박상욱의 기후 1.5] 제목의 온라인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재를 쉬지 않고 매주 꾸준히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기사와 환경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이와 같은 언론 정기 연재는 기후위기 분야에서 유일하다. 박상욱 기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담긴 심층취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 언론인상(2019), 세계기상의 날 기상청장 표창(2021), 한국수자원학회 언론인상(2022),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2023) 등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환경부·교육부 공동 발간 교과서 <기후변화는 느리게, 우리의 대응은 빠르게>와 청소년 서적 <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를 집필했다. 지난 해엔 그간의 연재를 엮은 책 <기후 1.5℃ 미룰 수 없는 오늘>을 펴내기도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남기는 것뿐입니다. 길어야 2~3분에 불과한 방송 리포트로는 부족하기에 5~6천자에 달하는 연재 기사를 쓰게 됐고, 그 5~6천자로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컨텍스트(Context)를 전하기 어렵기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나왔으면, 그 이야기를 접한 누군가가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고민해 봤으면, 그래서 이 어젠다가 더 이상 '변두리 어젠다'나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내일의 일, 내 일'로 여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박상욱 기자에게 4년간의 취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고 질문했더니, 수많은 도움과 해안을 주신 분 중에서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를 꼽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최했던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천호 박사의 강연을 듣고 연재의 연료, 원동력을 얻게 된 것. 박상욱 기자는 조천호 박사의 초연함과 열정, 그리고 통찰력에 힘입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쓰고, 말하다

지금에서야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과 기업, 국가의 노력을 요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느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탄소국



2. 평소에도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친환경 챌린지를 이어나가고 있는 박상욱 기자.

경조정제도와 같은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에 처음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4년의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은 EU, 미국, 일본이 탄소세를 도입하면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상품 15개가 입을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1998년에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기구인 <기후변화 대응대책팀>을 구성했다. 이는 오늘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효시와도 같은 기구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왔다. 만약, 1998년 출범한 대응대책팀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진작에 감소세로 돌아섰을 것이라고 말하는 박상욱 기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이유를 찾자면 '한참 밀린 우선순위'라고 말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발등의 불'이 된 지금도 기후변화 대응의 우선순위는 다른 어젠다들에 밀리기 일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K-water, 기후변화 대응 마중물 되길

한편 박상욱 기자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이나 중요한 어젠다로 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물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물을 귀하

게 여기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생물다양성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는 비단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번해진 극한 기상 현상에 따른 안정적인 물관리는 기본입니다. 이전 취수와 정수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증대와 같은 초기 생산 과정부터 녹물, 수도관 파열과 같은 소비 말단까지 관리해야 하겠죠. 단순히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 매몰되지 않고, 사용하는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원 단위의 에너지 사용량, 원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박상욱 기자는 이와 같은 수자원 활용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K-water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을 키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또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번 충전하면 오래가는 스마트폰이나 랩탑, 연비나 전비가 우수한 자동차, 소음과 열을 잘 차단하는 창호 등 생활 속의 선택도 탄소 배출과 직결된다는 것.

박상욱 기자의 내일이나 우리의 내일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일'이라 느끼고 합리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진다면 분명 우리 다음 세대가 느낄 내일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남겨지지 않을까.

박상욱 기자의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연재 칼럼 제목

-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 울거울 날씨 기후 전망
- '뚜렷한 사계절' 무색해져가는 우리나라의 계절
- 다시 찾아온 태풍의 계절, '힘의 원천' 바다는 끓는 중
- 역대급 낙뢰의 기록과 소나기의 상관관계
- 때 이른 폭염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 '1만 km 떨어진 바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 가고 나니 찾아온 모래먼지

‘내일’이 아닌 ‘내 일’인 워터 리스크!

글: 박상욱 JTBC 기자

지난 10월부터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의 경우, 유럽으로 수출할 때에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이에 대해 얼마나 비용을 지불했는지 보고하게 됐습니다. 시범 기간이기에 품목은 6개에 그치지만, 이후에는 품목도 늘게 될 것이고 ‘보고’를 넘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찍이 온실가스 감축에 정부 예산과 기업의 투자를 쏟았던 EU가 ‘비용 회수’에 나선 겁니다.

EU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에 이어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는 기후 관련 공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원가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해외로 상품을 수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거나 또는 더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

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정성 평가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게 상호 비교를 할 수 있긴 한 거야?’ 의문이 쏟아졌지만 이젠 다릅니다. 지표화, 표준화를 통해 비교 가능해졌고, 온실가스에 값을 매기는 탄소 프라이싱으로 ‘배출=비용’이 됐으니까요.

이러한 변화 자체를 리스크로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는 그동안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측정할 만한 해본 이들도 많고, 그걸 어떻게 줄여야 할지도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점차 ‘탄소 배출에 관심을 갖고, 감축은 어려워도 관리는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 리스크엔 비단 ‘탄소 배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소와 더불어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는 물 또한 주요한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워터 리스크는 정부든 물론 기업과 시민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일로 거듭났습니다. 전 세계 400곳 넘는 글로벌 기업이 가입한 이니셔티브인 RE100은 이제 국내에서도 ‘시사 상식’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RE100을 발족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공개프로젝트)는 기업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량’이나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와 같은 정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관련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요구하고 있죠. 탄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공개함으로써 물안보(Water Security)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워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당장의 ‘물난리’ 역시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다가 갑작스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일 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태풍의 여파로 쏟아진 비에 세계 최고의 용광로가 물에 잠기고, 역대 최장 기간의 가뭄에 저수지 곳곳이 말라붙거나 지하수가 동나는 일들... 모두 한 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 어디는 물이 넘쳐서 문제, 어디는 물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강수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배수와 취수 모두 어려워짐을 의미하고, 결국 물관리 고도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물관리 능력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주어진 과제는 또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상품이 ‘반도체’라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품은 ‘안전한 물’이라고 볼 수 있죠. 워터 리스크의 최소화와 더불어 수처리 과정 전반의 탄소중립과 그 기술의 확대·전파도 주요 과제이자 역할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물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고, 버리는 과정 대부분은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사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원을 확보하고, 그 물을 정화하고, 가가호호 보내는 과정에도, 가정이든 공장이든 각 사용자가 사용한 물을 보내고, 정화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도. 어느 과정 하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 대부분은 전력이고요. 여전히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정수장 대부분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 상당해 지자체가 소비하는 공공전력 사용량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전기의 탈탄소’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펌프, 관망, 멤브레인 등 효율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광역정수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수장과 AI 정수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확대하고, 각종 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을 개선해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와 노하우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수장 시설에 전파하는 낙수효과까지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몫일 겁니다. 그리고 물을 ‘물쓰듯’ 하지 않도록, 귀한 물, 소중한 물로 여겨지도록 시민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 또한 함께해야 할 겁니다.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이 있다. 신들의 식탁과 같은 거대한 테이블 마운틴을 품고,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케이프타운은 최근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글 사진_우지경(여행작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에코 시티 남아공 케이프타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대항해시대 탐험가가 발견한 희망봉에는 바람이 심 없이 불고, 모래가 고운 볼더스 비치에선 자카스펑귄 3,000여 마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남아공 제2의 도시인 케이프타운은 이국적인 풍경뿐 아니라 친환경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자전거와 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도로를 정비한 덕에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명소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접근할 수 있어 여행자들도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케이프타운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풍력 타워, 태양 전지판 등을 제조하기 위해 녹색 제조 산업에 72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녹색 에너지를 선도하는 6개의 아프리카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기 공급을 위해 케이프타운에서 40km 떨어진 아틀란티스에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2024년에 전력 생산을 시작하여 20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연간 14.7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아틀란티스는 규모 2km², 높이 최대 50m에 달하는 모래사막으로도 유명하다. 비가 온 후엔 모래 언덕에 물이 찬 풍경을 즐길 수 있고, 맑은 날엔 아틀란티스 모래사막에서 테이블 마운틴 뷰까지 즐길 수 있다. 지프 투어나 샌드보딩도 즐길 수 있다.

케이프타운의 중심, 테이블 마운틴

케이프타운 어디서나 보이는 테이블 마운틴은 정상이 식탁처럼 평평해서 '테이블 마운틴'이라 불린다. 흐린 날엔 테이블 마운틴 정상 가까이 구름이 걸려, 마치 하얀 식탁보를 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약 5억 년 전 얇은 바닷물 아래 형성된 사암이 지각 운동으로 솟아 높이 1,086m, 길이 3.2km의 거대한 산이 됐다. 축구장 15배 크기인 셈. 평평한 고원 동쪽에는 원뿔 모양의 데블스 피크, 서쪽에는 사자의 머리를 닮은 라이언스 헤드 두 봉우리가 있고, 그 안에 비비, 케이프망구스, 사향고양이, 스팅복 등 야생동물과 실버트리, 킹 프로테아 등 1,470여 종의 희귀식물이 서식한다. 테이블 마운틴에 오르려면 360도로 회전하는 케이블카를 타야 한다. 어느 자리에서도 전망이 두루두루 잘 보이는 케이블카다. 케이블카에 내리면 정상에 다다른다. 그곳에 서면 케이프타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유가 있다면 2시간 트레킹 코스를 추천한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눈앞에 절경이 펼쳐진다. 곳곳에 전망대가 있어 근사한 풍광을 카메라에 담기도 좋고, 바위에 앉아 쉬어가기도 좋다. 걷다 보면 라이언스 헤드 넘어 로빈 아일랜드까지 선명하게 내려다보인다.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의 역사가 깃든 희망봉

희망봉(Cape of Good Hope)은 케이프타운의 또 다른 랜드마크다. 이곳 이름이 처음부터 희망봉은 아니었다. 1488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인도에 가는 항로를 찾던 중 폭풍으로 인도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 닻을 내린 뒤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9년 뒤 또 다른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가 폭풍의 곳을 무사히 통과해 인도에 당도하자, 포르투갈 왕 주앙 2세가 '희망봉'으로 개명하도록 했다. 1652년 동인도회사의 안 판 라비크가 상륙하며 네덜란드 농부들의 이주가 줄을 이었다. 그들은 네덜란드어로 농부란 뜻의 보어인으로 불렸고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1814년부터 케이프타운이 영국령이 됐고, 1820년 케이프타운 식민지에 영국인이 4,000명 이주해 왔다. 남아공에서 다이아몬드와 금이 발견되자 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보어인과 영국인이 전쟁까지 벌였다. 승자는 영국인이었다. 1910년에는 백인들끼리 남아프리카 연방을 세웠고, 1948년에는 보어인의 정당인 국민당이 권력을 잡고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했다. 이것이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남아공 흑인들이 겪은 불평등의 역사다. 남아공의 흑인들은 냉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열하게 저항 운동을 한 끝에 자유를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프리카 유일의 펭귄 서식지, 볼더스 비치

케이프타운의 동쪽 사이먼스 타운에 자리한 볼더스 비치에는 평균 키 35cm, 몸무게 3.3kg의 자카스펭귄이 산다. 한때 백인들이 펭귄알을 요리해 먹는 바람에 멸종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 하지만 1982년부터 펭귄 보호 운동을 시작했고 볼더스 비치는 현재 3,000여 마리의 펭귄이 사는 펭귄 보호 구역이다. 보호 운동 덕에 볼더스 비치를 찾은 여행자들은 일광욕을 즐기거나 헤엄을 치는 자카스펭귄 무리를 마주할 수 있다. 수족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햇살과 바람을 자유롭게 즐기는 펭귄의 모습이 몽클하게 다가온다.



남아공 야생 동물 보호 구역, 크루거 국립공원

남아공을 여행할 때 야생 동물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고 싶다면 크루거 국립공원으로 가면 된다. 크루거 국립공원은 1898년에 개장한 아프리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빅 파이브(Big Five, 사자, 표범, 코끼리, 코뿔소, 물소) 외에도 얼룩말, 기린, 임팔라가 살고 있다. 면적이 1만 9,485km²에 달한다는 거대한 국립공원으로 '게임 드라이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파리 가이드와 함께 사륜구동 차량에 몸을 싣고 열대 초원 사바나를 누비며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둘러볼 수 있다. 게임 드라이브는 새벽과 저녁에 진행된다.



남아공 와인의 산지, 스텔렌보시

케이프타운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와이너리에서 즐기는 와인 시음이다. 케이프타운에서 46km 거리에 와인 산지로 유명한 스텔렌보시가 있는데, 와인 루트가 조성돼 있어 트램이나 자동차를 타고 여러 와이너리를 돌아보기 좋다. 블라우클리펜(Blaauwklippen) 와이너리에서는 근사한 비스트로에서 초콜릿과 함께 와인 테이스팅을 할 수 있고, 솜스(Solms) 와이너리에선 농가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식당에서 남아공 전통 음식과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국의 맛과 향이 입안 가득 번진다.



K-water 탁구선수단 국가대표 박강현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

조금씩 추워지는 날씨 탓에 실외 운동을 하기 힘든 계절이 왔다. 실내 운동을 찾고 있다면 탁구를 배워보면 어떨까? K-water 탁구선수단 소속이자 항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에 빛나는 박강현 선수가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탁구 기술 세 가지를 소개한다.

글_ 구지희 사진_ 김은주
영상_ 남건모(플러시메이커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의 주역, K-water 탁구선수단

K-water 대전 본사 세종관 훈련장에 들어 서자, 탁구단 소속 선수들이 내뿜는 후끈한 열기와 우렁찬 기합 소리가 가득하다. K-water 탁구선수단은 지난 2016년 창단 이래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남다른 기세를 올리고 있는 탁구단의 에이스는 바로 박강현 선수다. 왼손잡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어느 쪽 손으로도 국내 최고 스윙 스피드를 내는 박강현 선수. 2023년 올 한 해에만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단체 동메달과 개인 복식 동메달, 항저우아시안게임 단체 은메달 등을 목에 걸었다. 박강현 선수는 “메달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쁘고 뜻깊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강현 선수는 K-water 탁구선수단 박정우 선수와 함께 12월에 열리는 ‘2024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선발전’에 출전한다. 이곳

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면 ‘2019년 부다페스트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이어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째 태극마크를 달게 되는 것이다.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탁구 대회로, 한국 탁구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또한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출전권까지 걸려 있어 한층 이목이 집중된다. K-water 탁구선수단을 지휘하고 있는 이세돈 코치는 이번 선발전을 통해 선수들이 한국 탁구 역사에 한 획을 긋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전용 체육관 건립 등 K-water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언제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승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올해의 가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높이 비상할 K-water 탁구선수단의 2024년을 응원한다.



박강현 선수가 전수하는 원포인트 레슨



“탁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히 연습하여 탁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K-water 탁구선수단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백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가 라켓을 쭉 방향 그대로 치는 동작이라면, 백 드라이브는 손을 몸쪽으로 당겨 라켓 반대쪽으로 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린 후, 백스윙할 때 라켓 끝을 몸쪽으로 뺐다가 공이 올 때 라켓 끝을 돌려 내면서 공에 회전을 줍니다.



백플립(치기타)
낮게 들어오는 서브 공을 공격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공에 최대한 가까이 간 후, 백스윙을 최대한 크게 하여 공의 윗부분을 칩니다.



포핸드 드라이브
탁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입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넓게 벌립니다. 공이 올 때는 왼쪽 다리를 구부려 왼쪽에 중심을 두었다가, 공이 라켓에 맞을 때 오른발로 중심을 옮겨서 공에 회전을 줍니다.



국내 최고! K-water 탁구선수단을 소개합니다

K-water 탁구선수단은 2016년 국민 생활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창단한 남자실업탁구단이다. 현재, 김영진 감독과 이세돈 코치의 지휘 아래 국내 정상급 선수 7인이 등록돼 있다. 2023년 K-water 탁구단은 전국체육대회 3위,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체 준우승 개인 단식 2위와 3위-혼합복식 1위와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활약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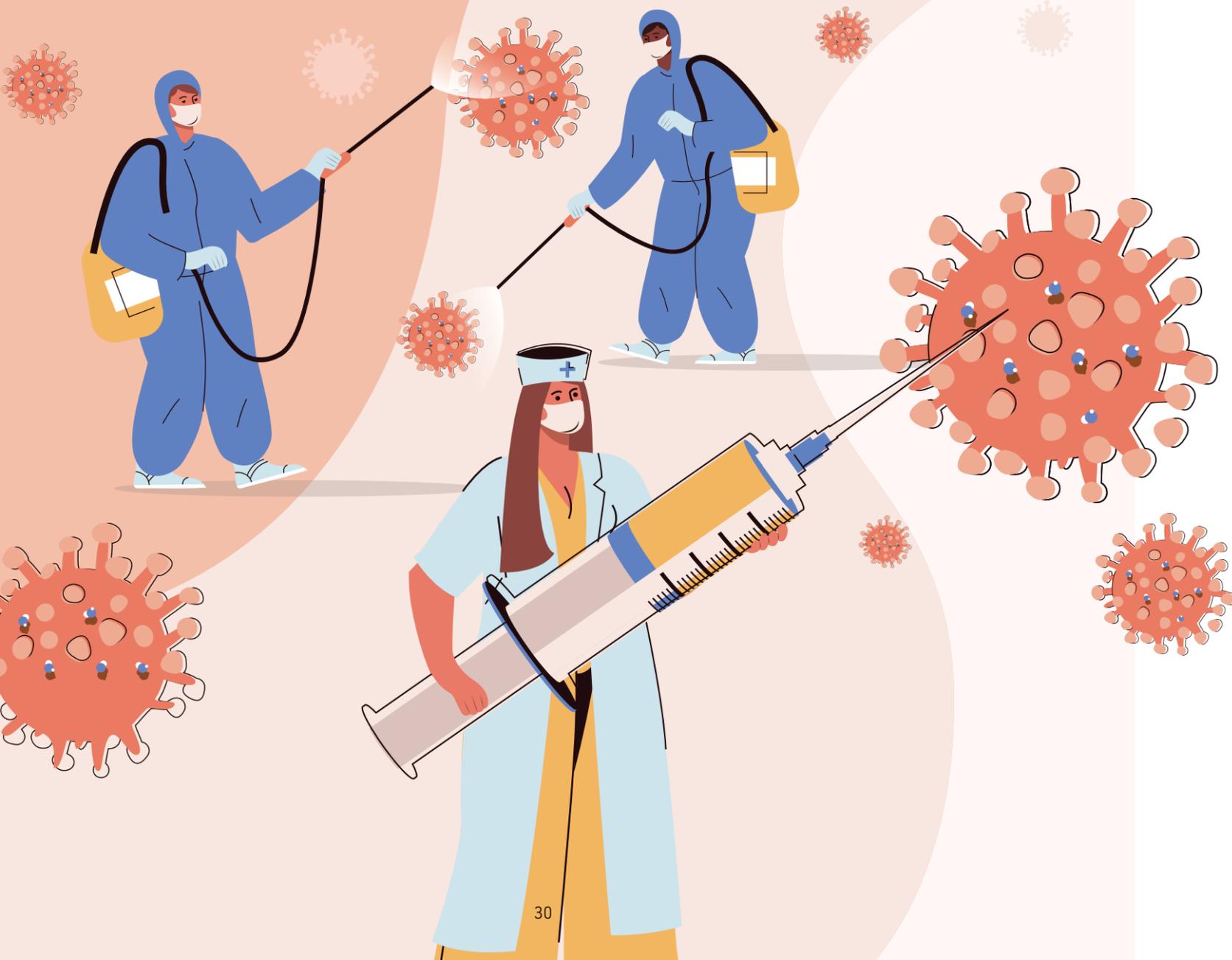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박강현 선수의 탁구의 기술'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계절성 바이러스 질환이 겨울이 아닌 여름에도 크게 유행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루엔자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각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글. 전하영 자료. 질병관리청

철 잃은 독감의 행방



사계절 내내 독감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2019년에 코로나19가 유행하자 2020년 겨울에 인플루엔자(독감, 이하 인플루엔자)가 거의 사라진 듯 보이는 통계가 집계되었다. 그러다 이듬해 12월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 들어서는 겨울이 오기도 전인 여름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 코네티컷주 예일 뉴헤이븐 어린이병원은 2022년 여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들에게서 인플루엔자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 7가지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플루엔자가 이른 시기에 기승을 부리면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동시에 창궐하는 형태가 잦아지고 있다. 이후 코로나19의 오미كرون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는 점차 다시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2022년 9월 16일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고, 2023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올해 가을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노인에게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를 보며 6개월간 면역이 유지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을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에 변이를 일으키거나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격리, 거리두기, 마스크 이행 등의 개인 방역이 오히려 '자연 면역력'을 떨어뜨려, 개인 방역 해지 후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가 급격히 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독감과 코로나, 어떻게 다를까?

플루오나, 트윈데믹, 멀티데믹 등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되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 사망률 증가 등의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유사해 감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각기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코로나19를 예방하진 못하더라도, 동시에 감염될 경우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감염 시에는 타미플루 등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는 인플루엔자 치료를 먼저 권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감기	코로나19
잠복기	1~4일	없음	1~14일(평균 4~7일)
유행 시기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추이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	2019년부터 지속 중
원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 B, C형)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COVID-19 바이러스
증상	전신증상(오한, 인후통, 38도 이상의 고열)+호흡기 증상	호흡기 증상(미열, 몸살기운 콧물, 기침)	호흡기 증상(고열,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또는 무증상
합병증	폐렴, 심근염 등 합병증 주의	2~5일만에 합병증 없이 회복 가능	폐렴, 부정맥, 심장 질환 등

※ 2023-2024 독감 무료 접종 안내 : 생후 6개월~13세(2010.11~2023.8.31 출생자)/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대구시의 유일한 다목적범으로 거듭나다 군위담지사

2023년 7월 1일부로 경상북도에 속했던 군위군이 127년 만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에 군위담도 대구시의 다목적범으로서 대구 시민들의 새로운 수변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더 높이 도약할, 더 넓은 포용력으로 시민들을 반길 군위담지사를 위해 수(水)타박스가 나섰다.

글. 박향아 사진. 김은주 영상. 남건모(플러스메이커스)



13년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이어온 군위댐

겉껍이 둘러싸인 산을 병풍 삼아 잔잔하게 흐르는 군위호 아름다운 자연을 오롯이 품고 있는 군위댐은 저수용량 48.7백만m³의 소규모 댐이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댐을 만들기 위한 지사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14명의 직원이 단단한 팀워크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댐 운영과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며 설명을 덧붙이는 김한샘 대리. 군위댐이 준공 이후 13년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2023년 7월 1일부로 경상북도에 속했던 군위군이 127년 만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군위댐지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로써 경상북도의 수많은 댐 중 하나였던 군위댐은 대구의 ‘유일한’ 댐이 되었다. 이영우 지사장은 “이번 편입을 기점으로 군위군이 교통물류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면, 수자원이설로서 군위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군위댐이 많은 대구 시민들이 찾는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조성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아름다운 군위호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조성, 수물 전 마을의 모습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군위군 주민들과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해서 더 풍성했던 수(水)타벅스

2023년의 마지막 길목, 군위댐 전망대 옆으로 노란색 트럭 한 대가 들어오더니, 커피 내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여기에 향긋한 커피 향까지 더해지니 코끝은 간질간질, 침이 ‘꿀꺽’ 넘어간다. 오늘 수(水)타벅스가 찾아간 곳은 군위댐지사.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한 한 해를 보낸 동료들을 위해 공태서 대리가 신청한 이벤트다.

특히 이번 ‘수(水)타벅스’ 이벤트에는 군위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댐 환경 및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흥미정 과장은 “평소 지자체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었는데, 공태서 대리 덕분에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 수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군위댐지사 편 보러가기



있어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군위댐 상류 오염원 관리를 위해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지역 주민이 상류 쓰레기 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군위호로 유입되는 부유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깨끗한 군위댐은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水)타벅스의 맛있는 커피와 군위댐지사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간식(떡)까지 더해져, 오늘의 이벤트가 한층 풍성해졌다. 군위댐지사 직원들은 물론, 인근 소방서와 군청 직원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까지 함께한 즐거운 티타임.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준비해준 커피라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네요.” “앞으로도 우리 군위댐을 위해 애써주세요.” 주민들이 전해주는 감사와 응원의 인사에, 군위댐지사 직원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더해진다. 이영우 지사장은 “2024년에는 군위군을 넘어 대구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명품 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커피 한잔을 나누며 보낸 특별했던 오늘 하루를 디딤돌 삼아, 2024년 군위댐이 더 높이 비상하길 응원한다.

message.

“2023년을 마무리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



공태서 대리 군위댐지사 경영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우리 지사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한 한 해를 보낸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선사하고 싶어 ‘수(水)타벅스가 간다’를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위댐을 만들기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커피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水)타벅스’를 통해 받은 에너지를 발판삼아 2024년에는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Adieu 2023!



2023 START!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K-water의 2023년, 희망의 물길을 심 없이 만들어온 지난 1년간의 주요 발자취를 되돌아 보았다.

글_ 편집실 자료_K-water

1월 CES 2023 참가

K-water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3'에 참가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박람회에서 K-water는 대한민국 물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2월 국민과 함께 가뭄 극복에 총력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이 제한급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뭄 극복 캠페인'을 통해 가뭄 상황을 알리고 생활 속 물절약 운동으로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3월 UN 2023 물총회 주도적 참여

K-water가 아시아물위원화(AWC)의 회장기관으로서 'UN 2023 물총회'에 참가해,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글로벌 사무국으로 지정되는 등 글로벌 물분야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4월 물산업 펀드 4,600억원 조성

K-water가 국내 물산업 투자 마중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물분야 유니콘기업 배출 및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에 2018년부터 자체자금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와 함께 2025년까지 4,600억 원 이상 물산업 특화 지역혁신 펀드를 조성한다.



2023



GOOD BYE! 2023

9월 수도요금 동결 발표

K-water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결음으로, 수도요금 동결을 선언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지난 2016년 9월 수도요금 인상 후 7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다.

11월 新경영 선포

11월 16일, 창립 56주년을 맞아 K-water의 新경영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새로운 물의 시대를 예고했다.

5월 초순수국산화 기술 개발

반도체 생산의 필수 원료인 초순수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K-water가 초순수 국산화 기술 자립을 위해 힘쓴다. 초순수 실증플랜트 1단계 준공을 마치고 하루 1,200톤의 초순수 생산과 공급을 개시했다.

7월 홍수기 대응

이례적인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댐 운영·관리로 홍수수위를 조절했다. 또한 수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작업, 병입수돗물 및 비상급수 지원, 세탁차량 투입 등을 지원했다.



6월 윤석대 16대 사장 취임

6월 19일, 윤석대 사장이 K-water의 제 16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8월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 참여

전쟁으로 인해 다수 인프라가 손실된 우크라이나의 도시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50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물, 에너지, 스마트 도시 등 분야별 재건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소양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의 젖줄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켜온 소양강댐. 소양강댐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넘어,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한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新경영 선포

K-water 창립 56주년



새로운 물의 시대를 향해 K-water號가 힘찬 향해를 시작합니다

11월 16일, K-water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新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격변하는 시대의 파고를 넘어 국민이 안전한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변화와 도전으로 더 큰 희망을 향해 힘차게 출항하는 K-water의 역사적인 순간을 살펴봤다.

글: 편집실 자료: K-wat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으로 도약하다

K-water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물관리
공기업이다. 반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필요
한 용수를 공급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고
국민 물복지를 실현해 왔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환경이 급변하며 물관
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오늘날.
K-water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예고했다. 무
엇보다 날로 심화하는 기상재해에 대응하
여 국민이 안전한 물관리를 최우선으로 삼
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물의 가치가 높아짐
에 따라 물 산업 활성화로 녹색수출에 기
여하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로 산업이 재
편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K-water 윤석대 사
장은 전 직원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담아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新경영
을 선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가 만드는
도약과 행복의 새 역사, 흔들림 없이
국민이 안전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윤석대 사장 기념사 中-



수자원

국민을 위한 물안전 강화

흔들림 없이 국민이 안전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향해가는 것은 K-water號의 최
우선 과제다. 먼저 K-water는 본연의 업
무인 '물관리'에 어느 때보다 집중기로
한다.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
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 홍수 재해, 용수공급 부족
등 일련의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K-water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극한 가뭄과 홍수를 대비한 물그릇
확대에 집중한다. 현재 K-water가 관리하

고 있는 댐은 소양강댐을 필두로 전국 20
개의 다목적댐과 14개의 용수댐 등 56개
소가 있으며, 125억㎡의 용수공급(국가 전
체의 61%)과 53억㎡의 홍수조절(국가 전체
의 94%)를 담당하고 있다. K-water는 기존
의 인프라를 뛰어 넘어 앞으로의 폭우, 물
부족 등 기후변화와 물문제 해결의 실마리
가 될 신규 물그릇 확충과 기존 시설의 효
율적인 연계·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수자원
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녹조 등 오염원에 대해 과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미션
비전
전략방향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 1 극한기후에 안전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
- 2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질 물공급 실현
- 3 지방시대를 여는 특화도시 조성 및 물에너지 확대
- 4 민관·글로벌 협력 중심 물가치 창출
- 5 전방위 혁신으로 내실있고 유능한 조직 구현

1



1. 11월 16일, 대전 대덕구 K-water 본사에서 창립 56주년 행사가 열렸다.
- 2-3. 창립 56주년을 맞아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올해의 K-water' 수상이 이뤄졌다. 사진은 '올해의 K-water' 후보로 선정된 3명의 모습. 이 중 수상은 주암댐지사 박미자 과장(가운데)이 선정됐다. 인재경영처 윤성희 건강관리센터장(좌)과 전남지역협력단 이재범 차장(우)은 각각 11월, 12월 '이달의 K-water'으로 선정됐다.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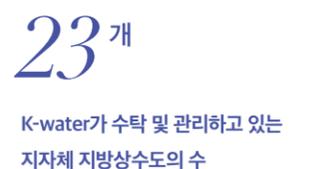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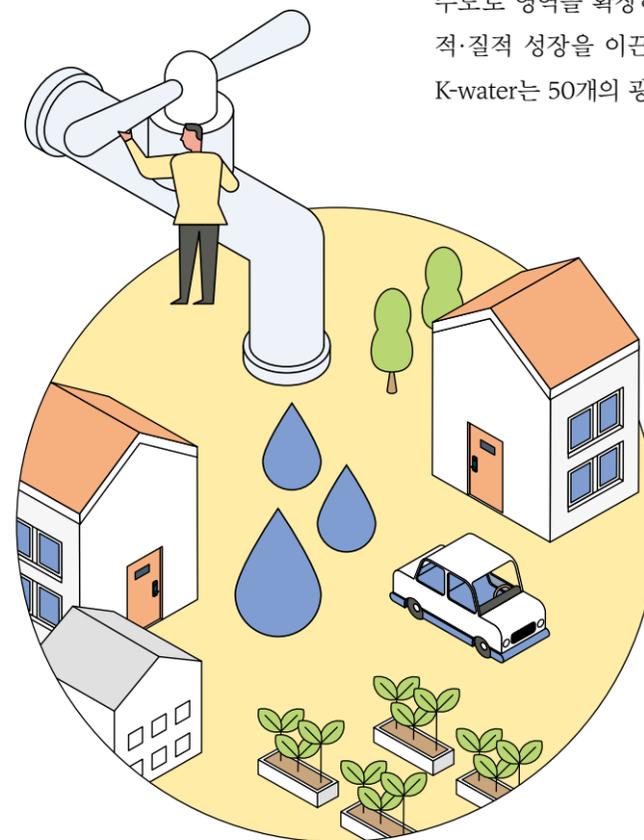


수도

부족함 없는 깨끗한 물공급 실현

K-water는 국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혁신'에도 힘을 다한다. K-water는 그간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도시설의 최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부족함 없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왔다. 수도 분야는 지난 1973년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를 시작으로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로 영역을 확장하며 K-water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끈 핵심이기도 하다. K-water는 50개의 광역상수도를 운영하

며 국가 전체 수도시설 용량의 48.7%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23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수탁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최고의 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원활한 수도시설 운영은 물론, 활성탄 비축 등을 통해 물공급에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적극 기여한다. 국가와 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고품질 용수 공급에 힘쓰는 것. 댐과 같은 전통적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첨단수처리 기술을 확보하여 재이용, 해수담수 등 대체수자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에 지역상생 협력을 위해 K-water가 나선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물 복지 차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을 효율화하고 현대화사업 등 보편적인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더불어, 물순환과 에너지 자립 등 지역 특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기후변화에 강하고 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도시·에너지

**물특화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물의 시대**

K-water는 물이 가진 다양한 부가가치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공급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생태 중심 생활 공간과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의 시대가 도래해 국가별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K-water의 물특화 도시사업은 국가 경제발전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물안심, 탄소중립, 환경가치로 특화된 기후탄력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에너지 사업 또한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수출기업의 녹색 무역장벽 돌파를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이 물가치 확장을 통해 독자적 융복합성 도시·에너지 사업을 재편하는 것. 이것이 K-water가 가진 경쟁력 중 하나이다.

해외·물산업

물협력을 통한 녹색수출의 교두보

한편 K-water는 원팀 코리아로서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녹색수출의 교두

보가 되고자 한다. K-water의 해외사업과 물산업 육성은 물과 도시, 에너지 분야의 종합 역량을 활용한 기후위기 극복 솔루션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K-water가 가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 스마트시티 조성 등 물종합 역량을 발휘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한다.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주도과 민간의

녹색수출 교두보 역할을 확대하며 국제 네트워크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K-water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첫 번째 목표로 하며, 기업 및 지역, 국가와 함께하는 역동적 성장과 도약,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공정한 글로벌 물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K-water가 만드는 ‘안전, 역동, 공정’의 새로운 물의 시대를 기대해도 좋다.



MINI INTERVIEW

미래전략실 박성미 차장

기후위기의 난관 속에서 물문제 해결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기업을 튼튼하게, 지방을 살기 좋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속에 으뜸 물 기업 K-water로 도약하자는 목표와 의지를 담았습니다. 비전과 핵심가치 등 新경영의 가치체계 재정립에 가깝없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미래전략실 변경안에 지지를 보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water 창립 56주년
新경영 선포를 축하합니다!**



이주환 국회의원

K-water 창립 56주년과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물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water가 그리는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K-water의 창립 56주년과 新경영 선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water는 지난 56년간 국가 물관리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가 큼니다. 지금은 극심한 기후 위기로 인해 물관리 여건이 급변했고, 그에 맞춰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에 발맞추는 K-water의 활약을 국가물관리 파트너로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K-water 창립 5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K-water가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전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K-water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water와 대전광역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한 물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미래의 대전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

먼저 K-water의 창립 56주년을 축하드리며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시기에 협력해주신 K-water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K-water가 우크라이나의 물 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노력을 매우 지지합니다. K-water와의 공동사업은 우크라이나의 상수도시설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K-water가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제사회의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채선주 NAVER ESG정책 대표

K-water 창립 56주년과 新경영 선포식을 축하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력 에너지 PPA부터 물 관리, 디지털 트윈 구축까지, K-water와 NAVER는 다양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ESG 파트너로서 지구를 위한 녹색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DS부문 부사장

국가의 물 관리를 책임지는 K-water의 창립 56주년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호의 물 에너지를 시작으로 K-water와 삼성전자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으로 무궁한 발전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K-water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K-water人'을 선정한다. 지난 11월 16일에 진행된 '新경영 선포식'에서는 '올해의 K-water人'으로 주암댐지사 박미자 과장이 선정되었다.

글: 편집실 사진: K-water, 김은주

2023 올해의 K-water人, 주암댐지사 박미자 과장

“내 인생 최고의 날! K-water 만세, 사장님 만세, 박미자 만세”

- 박미자 과장의 수상소감 중 -



올해의 K-water人이란?

5년 이상 근속 직원 중 조직기여도가 높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우수 직원 한 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공사 최고 영예의 상이다.



2023년 올해의 K-water人



THANK YOU!

BEST



폐교 활용부터 플라스틱 방앗간까지 지역상생 아이디어 '반짝'

주암댐지사 박미자 과장은 1984년 여수권지사로 입사해 40여 년 가까이 K-water에 재직 중으로 지난 2008년부터 주암댐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주암댐지사에 근무하며 공사 최초로 댐 주변지역의 폐교를 활용해 K-water형 랜드마크인 주민 자립형 종합복지 플랫폼(생산-판매-홍보-일자리) '송주에코마켓'을 건립하여 매년 수익률의 20%(약 1,500만 원)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였다. 또한, 송주에코마켓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일터로 자리매김하여 2022년 기준 총 783명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이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송광으레'를 탄생시켰다. 인구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장류마을인 송광으레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육성하고 200여 마을 주민 및 주민 880세대가 참여해 총 17억 원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그녀는 2년 연속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수 전략과제로 선정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화모델 구축과 주민조합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탄소중립에 관한 주민 인식을 제고하면서 ESG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위) 박미자 과장은 폐플라스틱 자원화 모델인 '플라스틱 방앗간'을 운영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선순환(분리-배출-수거) 모델을 구축했다. (아래) 댐 주변지역의 폐교를 활용해 K-water형 랜드마크인 주민 자립형 종합복지 플랫폼(생산-판매-홍보-일자리) '송주에코마켓'을 건립했다.



Interview

올해의 K-water人 선정 소감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다짐했던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달려오다 보니 이런 영광의 날이 온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맘껏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구요.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 동안 K-water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K-water人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UN 부패방지 '청렴인' 표창도 수상, 끊임없는 혁신 솔선수범

박미자 과장은 주암댐 주변 유관기관과 청렴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UN 부패방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부패방지 청렴인 표창'을 수여 받았다. 또한 대내외 댐 지원사업 성공사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공익의 가치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민원 대응으로 가뭄위기를 극복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조직문화를 선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지역의 중심이 된 주암댐에서는 수질,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 등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다양한 캠페인이 개최되었다. K-water 주암댐지사는 주변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밥차 제공, 심폐소생술 키오스크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의 환경을 조성해 나갔다. 올해 초 박미자 과장은 가뭄 극복을 위한 지자체 자율 절수 협약 참여를 설득해 가뭄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썼다. 또한, 지난 11월 녹색 생활 문화의 전반적인 보급을 위해 자원순환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의 장인 '제1회 순천자원순환축제' 개최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박미자 과장의 도전과 아이디어는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K-water가 新경영 방향으로 'Your True ESG Partner'로서의 역할을 제시했다.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녹색무역장벽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함께 허들을 넘겠다는 다짐이다.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Your True ESG Partner가 지향하는 가치와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글: 김영은 자료: K-water

'ESG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 장벽, 함께 넘어요' Your True ESG Partner K-water



'ESG'의 열쇠 '물의 힘'

글로벌 경제 규범이 근원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국제 사회의 표준으로 부상했다. ESG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 수사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는 글로벌 질서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이에 미국·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경영은 이미 트렌드를 넘어 필수가 됐다. 특히 EU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EU 공급망 실사법' 발효를 앞두고 있다.(2024년 발효 예정)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ESG는 새로운 녹색무역 장벽으로 작동된다.

K-water는 이러한 글로벌 경영 추세에 발맞춰 ESG에 최적화된 경영 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물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핵심 고리임을 주목하고 탄소중립 정수장을 비롯해 수소 에너지 전

환, 물 순환 도시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ESG 체질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쌓아온 ESG 경영 성과를 사회 전반에 공유하여 대한민국 ESG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글로벌 규범으로 형성되는 ESG 허들을 함께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Your True ESG Partner'

K-water ESG 경영의 새로운 분기점

2023년 올해는 K-water ESG경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분기점이다. 지난

11월 新경영 선포를 통해 그동안 확보해온 K-water의 ESG 경영 역량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힘으로 공유할 것을 시사했다. 'Your True ESG Partner'라는 슬로건에는 기업과 사회와 함께 ESG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K-water의 의지가 담겨있다. K-water는 꾸준히 ESG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ESG 경영을 위한 행동규범과 원칙을 가다듬고, 이사회 내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PDCA(Plan·Do·Check·Action)



K-water는 ESG 성과 실현을 위한 3대 방향과 9개 전략과제 및 27개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업무를 ESG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ESG 경영을 사업 경영에 내재화하고 있다.

ESG 중·장기 추진전략 방향별 대표성과

3대 전략방향	9개 전략과제	K-water ESG 대표활동
전략방향 1 환경 가치 중심의 사업추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서비스 전 과정 친환경 가치 강화 탄소중립 실질적 이행력 확보 기후위기 극복의 능동적 역할 확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트윈으로 완벽 구현한 지능형 물 관리 체계
전략방향 2 가치 사슬 전반의 ESG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모두의 물이용 권리 보장 지역과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책임감 있는 공급망 관리 	민간기업 지원 강화 디지털 물 산업계의 Google, waterRound
전략방향 3 ESG 지향형 경영확신 및 체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점 경영 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기반 국민 '알 권리'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기반 투명경영 실현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산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한 동파예측 서비스 개발

Cycle에 따른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실무 조직을 마련하는 등 ESG 경영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실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EU의 공급망 실사법이 2024년에 본격 실행되는 등 ESG가 글로벌 규범으로 실질적인 작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water는 ESG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ESG 과제 관리 시스템 구축과 ESG 경영성과 가치산정 모델을 정립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기업 ESG의 이상향이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ESG성과 가치산정 모델화'는 앞서 도출된 ESG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ESG 경영 성과를 계량화하거나 화폐화하는 방식으로 민간공동 연구를 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ESG 경영을 더 진정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공공부문의 ESG 경

영 선도'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받는 ESG 경영 모델,

모두를 위한 이정표로

K-water의 ESG 경영은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ESG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A'를 달성했다. 올해 4월에는 중앙 ESG경영대상을 수상했고, 「세계지식포럼」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10개의 ESG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며 ESG 경영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water는 우리 사회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의 ESG 경영 모델을 공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학 교육현장까지 확장됨에 따라 충남대, 대전대, 한성대 등에서 K-water의 ESG 경영을 강의하고, 대학생 ESG 다큐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ESG 경영 협력 마중물

K-water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ESG 경영 협력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K-water의 ESG 대표 성과를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과 다 함께 실천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뽑은 'K-water의 ESG 대표사례' 및 'ESG 실천 슬로건' 공모 등의 홍보활동을 병행한 것. 또한 환경부가 주최한 국내 유일한 ESG 전시 행사인 「2023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K-water의 우수한 ESG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K-water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ESG 경영 흐름에 맞춰 ESG 가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모·자회사 ESG 경영 실천 공동선언 및 자회사 ESG 역량 강화 지원 로드맵 추진, 물산업 협력기업 ESG 지원 컨설팅 확대 등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 올 한 해는 어떤 시간으로 채워졌을까 하고 돌아보면 함께했던 소중한 얼굴들이 하나 둘씩 떠오른다. 사랑하는 가족, 든든한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사진으로 기념해 보면 어떨까? 조금 이른 첫눈이 겨울을 재촉하는 11월의 어느 날. 누구보다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두 팀이 만들어낸 어느 멋진 날의 기록.

글. 문수민, 구지희 사진. 김은주

프레임에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봉사활동 패밀리 리유니언 셀프 사진관 촬영기



뜨거운 여름부터 소중히 이어져 온 우정

구슬땀 흘리며 현장에서 맺어진 인연은 그 특별함이 오래 남는다. 낯선 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쌓아온 시간이라면 더욱 진해질 법하다. 올해 K-water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다시 재개했다.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지난 8월 다녀온 오랜만의 해외 봉사활동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였다. 정보관리처 방재인 과장, 전주권지사 조현지 대리, 김천부향댐지사 남예지 대리, 금산권지사 이희영 대리, 영·섬유역관리처 장용기 사원은 말레이시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만난 인연이다.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전주권지사 조현지 대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도시설 개보수, 지붕 보수, 벽화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동료들과 더욱 끈끈해졌다고 말한다. “처음 모였을 때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어색했어요.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페인트 작업할 때까지 만해도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같이 땀 흘리며 고생하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친해져서 돌아왔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셀프 사진관 안으로 직원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자 반기는 소리가 떠들썩하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반가운 인사만 한참이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들의 인사에는 오랜 친구를 만난 정겨움이 묻어난다.

함께하면 두 배로 따뜻한 겨울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 직원들이 모인 셀프 사진관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빠질 수 없다. 조현지 대리가 센스 있게 풍선, 가랜드, 머리띠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준비해왔다.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짓고 벽화를 그리던 호흡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도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힘을 합해 카메라를 설정하고 연신 즐거운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는 직원들의 얼굴이 화사한 웃음으로 가득하다. 특히 이날은 정보관리처 방재인 과장의 디지털 챌린지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본사에서 주관한 디지털 챌린지에서 금상을 수상한 방재인 과장을 축하하기 위해 손수 케이크를 준비해 온 남예지 대리가 마지막 소감을 남겼다. “각 지역에서 근무하느라 자주 보기 힘든 얼굴들인데, 셀프 사진 촬영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얼굴도 보고 과장님의 수상도 같이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주권지사 조현지 대리, 김천부향댐지사 남예지 대리, 금산권지사 이희영 대리, 영·섬유역관리처 장용기 사원, 정보관리처 방재인 과장

기술기획처 한완섭 부장 가족 셀프 사진관 촬영기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추억

올해 첫눈이 내린 늦가을 아침, 세종시에 자리한 셀프 사진관에 한완섭 부장의 가족이 들어섰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막내까지 삼 남매가 복닥거린다. 최근 첫째가 수능이라는 큰 이벤트를 지난 참이라 그런지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고3 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었어요. 몇 해전 사춘기를 격하게 겪은 터라 오히려 고3 시기는 평온하게 잘 보낸 것 같네요.” 한완섭 부장에 이어 아내 구현아 씨가 말을 이었다. “고3 엄마라는 부담감 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해줄까 고민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올 한해 고생한 지민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내년에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내년에 고3이 될 지수도 오빠처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고3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사진관이 낯선 아빠와 엄마 대신 촬영 현장을 지휘한 건 첫째와 둘째다.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인생네컷’ 셀프 사진 촬영 경험이 풍부한 덕분일까. “웃어요~ 허리 펴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복화술로 가족을 독려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프로다. 지수가 전하는 ‘사진 잘 찍는 비법’은 간단하다. “턱을 당겨야 하고요, 웃을 땀 안 웃을 땀 안 웃는 길기빠빠(길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가 중요해요.” 각각각색의 표정과 포즈에 까르륵까르륵 웃는 사이, 셀프 사진관 촬영 시간이 순식간에 종료됐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 시간에 못 끝냈을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촬영 내내 밝은 웃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던 구현아 씨가 소감을 남겼다.

내년도 올해만 같아라!

한완섭 부장에게 올해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이었던’ 한 해였다. “올해는 이렇게만 살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크게 후회가 없겠다 싶은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한 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물산업혁신처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했고, 하반기에는 기술기획처로 부서를 옮겨 동료들과 제도 보완에 힘썼습니다. 빈틈없는 업무 수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K-water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니 자긍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내 구현아 씨도 지금 같기만을 바란다. “올해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민이는 멋진 대학 생활할 수 있게, 지수는 꿈을 펼치기 위해 보내는 과정을 즐겁게 헤쳐 나가길, 우리 막내는 지금처럼 언제나 사랑스럽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청년이 되어가는 첫째 지민이와 둘째 지수는 영어 동시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차근차근 의젓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내년 가장 큰 소원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의 첫 시작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지민)” “저도 내년 수능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지수)” 큰 오빠, 언니에 이어 막내 지운이도 소원을 빌어본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방학 때 부모님이랑 간 수영장도 즐거웠어요. 내년에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내년에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가족들의 소망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완섭 부장의 바람이 이어졌다. “우리 아내에게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에게는 ‘아빠가 항상 믿는다’, 둘째에게는 ‘하고 싶은 거 해라’, 막내에게는 ‘아빠가 책임질게’라는 말들을 전하고 싶어요.” 오고 가는 다정한 눈빛과 몸짓이 고스란히 담긴 오늘의 사진이 모두의 소망을 지켜줄 약속의 시간으로 기록되기를.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내 구현아 님, 아들 한지민 님, 기술기획처 한완섭 부장, 딸 한지은 님, 딸 한지수 님

새해 소망을 적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연말이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면, 한 해를 돌아볼 시점에는 괜스레 미련이 남고 아쉬운 마음이 들곤 한다. 한 해를 정리하며, 미련과 후회만 남았다면 마음 돌보기를 통해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위로하고 응원해보자.

글. 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로 가득 찬 내 마음 돌보기



66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자칫 내가 올해 동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게 될 수 있다.

99

올해도 벌써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만하면 잘 지냈다 생각하면서도 마냥 시간만 흐른것 같아 허망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나만 이런 생각과 감정이 찾아오는 걸까?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후회로 가득찬 상태처럼 느껴질까? 어쩌면 한 해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서는 아닐까 생각해보자. 한 해를 정리하지 않으면, 뭔가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 마련이다.

한 해를 돌아볼 때는 물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후회와 미련이 드는 경험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공과 즐거움과 같은 경험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반성은 필요하지만, 후회라는 감정에만 매몰되게 되면 한 해 동안 성장한 측면에 대해 간과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로 가득찬 내 마음을 돌보면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가 올해 했던 일들을 정리해 보자. 노트북이나 태블릿, 핸드폰에 타이핑해도 되고, 종이에 직접 써 보는 것도 좋다. 한 해 동안 캘린더에 적어 놓았던 일정들을 보거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진 기록들을 참고로 하면 더욱 생생하게 작성해 볼 수 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적어보게 되면, 한 해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주기적으로 옷장 정리를 하듯이 머릿속의 경험들, 생각과 감정을 차곡차곡 정리해 보는 것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필요하다.

두 번째, 한 해 동안 있었던 성공과 즐거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이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 보는 것이다. 거창하거나 대단한 성취만 쓸 필요는 없다. 사소한 변화, 꾸준한 노력, 새로운 시도 어떤 것도 좋다. 작지만 성공 경험이 누적되면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게 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설정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필요하다. 적절한 결핍과 좌절 경험이 존재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 후회라는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자칫 내가 올해 동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무결점의 완벽한 상태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가깝다. '이만하면 괜찮은 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도 충실하게 살아온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유행 따라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 OFF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란 절차를 간편하게 해 유행에 맞는 의류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기민하게 유행에 반응하며 새로운 옷을 구매하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옷도 많다는 것. 이번 달 만큼은 유행 따라 버려지는 옷을 줄여보고, 리퍼브 매장이나 교환하는 방법을 이용해보자. 그밖에 똑똑하게 옷을 버리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글. 전해정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만큼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이 많다. 버려진 의류는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빠르게 버려지는 의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방치된 옷들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다. 버려지는 만큼 방대한 양의 의류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의류 원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및 합성섬유가 석유로부터 추출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 유엔(UN)의 조사 결과, 2022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약 8~10%가 패션산업으로부터 기인한다.

새 옷을 사거나 유행을 좋아하는 행위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새 옷을 구매한다는 것은 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자기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번 정도는 새 옷 쇼핑을 줄이고, 기존의 옷을 교환해서 입거나 중고 의류를 구입해보자. 무심코 만들어냈던 의류 폐기물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폐기물로 버려지기 전에 한데 모아 방문 헌 옷 수거를 신청을 해보자. 몇몇 업체는 헌 옷을 kg당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구마다 운영하고 있는 의류 수거함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의류수거함에는 헌 옷, 신발, 가방, 담요, 커튼 등을 배출할 수 있고 솜이불이나 베개, 방석, 여행용 가방 등은 배출이 불가하니 참고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의류 폐기물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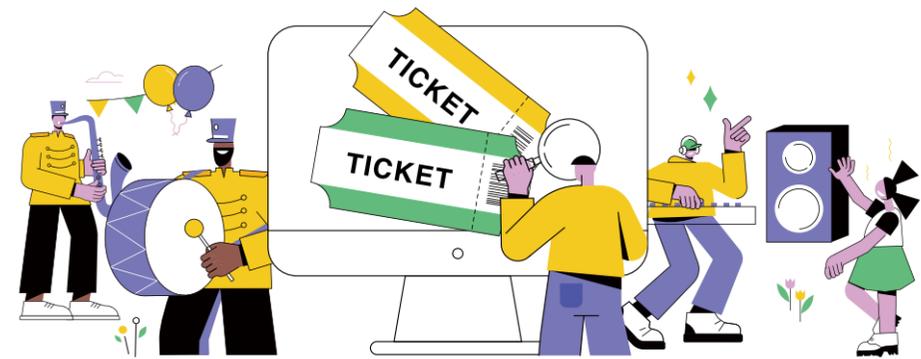
위의 '오프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버려지는 옷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의류 폐기물 OFF를 실천하고, 65페이지의 방울이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분 증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2월 20일 **선물 발송일** 1월 10일경

※ 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재미있으면 비싸도 괜찮아, 펀플레이션

지난 2020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가심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주춤했으나, 팬데믹 종료 후 펀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겨나 소비가 촉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심비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펀플레이션은 그 스케일이 남다르다.

글. 전해정

펀플레이션(Funflation)은 재미를 뜻하는 펀(Fun)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조합한 신조어다. 팬데믹 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엔데믹 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펀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펀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현상을 보이는 분야는 여행, 놀이공원, 호텔, 외식, 비행기, 콘서트 등 재미있게 소비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곳은 바로 대중음악 공연 분야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그녀가 개최한 전례 없는 규모의 콘서트로 티켓 수입이 1조에 달했으며, 공연하는 지역의 숙박, 식당, 교통 등 모

든 분야의 소비 거래가 상승한 것 이와 관련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졌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양표 가격이 150만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펀플레이션이 발생했다. K-POP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체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10만 원대였던 것에 반해 최근 4년만에 1.5배가량 상승했고, 2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표가 판매되고 있다. 국내 최정상급 보이밴드인 BTS의 멤버 슈가의 미국 콘서트 티켓은 정해진 가격 없이 실시간으로 값이 변동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적용해 130만 원까지 금액이 오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펀플레이션 현상은 연말연시를 맞아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마파크 및 공연 입장료 상승률

15 달러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1일 이용권
15달러 상승
1년 전 179달러 → 194달러
(약 26만3천 원)로 15달러(약 2만원) 상승

7.4%

북미지역을 순회하는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평균 가격
120.11달러(약 16만3천 원, 지난해보다 7.4% 상승, 2019년에 비해 27% 상승)

15.4%

에버랜드 1일 이용권
15.4% 상승
일일이용권(종일권) 성수기 가격
5만 8000원 → 6만 2000원



AWC 제19차 이사회

도약하는 AWC, 리드하는 K-water

아시아물위원회(이하 AWC)가 지난 11월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에 설립한 AWC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아시아 물 쟁점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 기구이다. 현재는 K-water를 포함해 총 24개국, 164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 중에 있다.

이번에 개최된 아시아물위원회의 제19차 이사회는 의장기관인 K-water 윤석대 사장을 포함해, 30여 개의 이사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사회 주요 안건으로는 '제10차 세계물포럼 개최', '제3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 준비 현황 보고, '제4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 개최지 결정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태국의 물 기업 전시회와 물 관리 기술 세미나가 연계되어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K-water를 비롯한 5개의 대한민국 물기업, 마닐라상수도청 산하 물관련 공기업 등 1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물 분야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사회 개최 다음날인 11월 17일에는 ADB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실행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물산업 및 녹색전환 협력 강화'를 위한 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본 개정 협약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 댐의 안전관리 및 운영, 유역 물 관리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녹색전환 정책 협력 등 공동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제22차 UN 자문기관 신규 공식위원으로서의 윤석대 사장



윤석대 사장, 제22차 UN 자문기관 신규 공식위원 선임

K-water 윤석대 사장은 11월 22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개발은행(ADB)에서 개최된 제22차 UN '물과 재해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패널(이하 HELP)'의 신규 공식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HELP가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참여가 어려웠으나, UN HELP 의장의 참여 요청과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윤석대 사장이 공식 위원으로 선임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로써 K-water는 물관련 세계 최고위급 위원의 위상에 걸맞은 위치에서 국제적인 물문제 논의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HELP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공동 노력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도 2023년 COP28(두바이, 11월~12월), 2024년 제10차 세계물포럼(발리, 5월), 2026년 제2차 UN 물 컨퍼런스(미정) 등 주요 국제행사와 연계한 물, 재해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활동 및 협력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K-water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디지털 트윈, SWM 물관리 시스템, 넷제로 정수장 등 다양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물과 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물 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제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FOCUS 1

아시아를 넘어 UN으로 '글로벌 물문제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다'

K-water가 지난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 개최와 아시아개발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제22차 UN '물과 재해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패널'의 신규 공식위원으로 선임되며 아시아를 넘어 UN으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글. 편집실 자료, K-water



K-water의 마스코트, 방울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월 K-water 창립 56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울이 캐릭터의 굿즈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3일동안 진행된 방울이 굿즈 팝업스토어 구매 소감부터 수익금 기부까지, 기분 좋은 방울이와 함께하는 하루를 소개한다.

글. 문수민 사진. K-water, 김은주

방울아 반가워!

FOCUS 2



윤석대 사장



류형주 부사장



구자영 기획부문장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

문숙주 수도부문장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

캐릭터로 만나는 K-water

빛방울이 떨어지던 11월의 어느 날, 대전 K-water 본사에는 또 다른 물방울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두 모이게 한 아주 특별한 물방울. 그 정체는 바로 K-water의 마스코트 '방울이'다. 11월 16일, 창립 56주년을 맞아 방울 대리 오피스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선보인 것. SNS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방울이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인형, 쿠션, 볼펜, 달력 등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방울이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계단을 따라 2층까지 이어진 줄은 방울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방울 대리의 오피스에는 굿즈뿐 아니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인형뽑기 구역까지 준비되어 보다 다채롭게 방울이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윤석대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이 직원들을 위해 직접 쿠션을 만드는 등 방울이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임원진들이 직접 솜을 채워 넣은 쿠션은 스토어가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품절되기도 했다. 양손 가득 방울이를 데리고 스토어를 나서는 K-water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울이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K-water 직원들의 마음을 뒤흔든 방울이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도 전한다. 방울이 팝업스토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이 점이 K-water 임직원들이 방울이 굿즈를 아낌없이 구매하게 된 이유 중 하나.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관을 찾기도, 절차를 알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K-water가 방울이 굿즈로서 가교 역할을 해준 것이다. 방울이가 전하는 마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팝업스토어에서 방울이 굿즈를 구매하는 임직원들 중 상당수는 자녀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굿즈를 구매했다. 모두가 풍성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는 K-water의 따뜻한 마음이 방울이를 통해 전해지는 듯하다.



인재개발원 김채희 대리

방울이 캐릭터가 귀엽다 보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선물하기에도 좋고 국민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물환경처 정재훈 대리

선물용으로 인형 3종 세트를 구매해 봤어요. 쿠션도 샀고요. 판매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깐 더 기쁜 마음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직원들을 위해 직접 솜을 채워 방울이 쿠션을 만든 K-water 임원진

1



우크라이나 부차시에 1,000만 평 규모최초 산업단지 조성 지원

K-water는 11월 24일, 한강유역본부에서 우크라이나 부차시(市) 및 인프라부(部)와 '부차시 도시재건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부차시 도시재건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을 위한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협력, △부차시 물관리시설 복구 및 현대화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물관리 관련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 등이다.

2



'K-water 물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K-water가 11월 9일, 대전 본사에서 '2023년 K-water 물사랑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된 104점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물사랑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 공모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다. 이번 'K-water 물사랑공모전'은 '물 만난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림, 사진, 일러스트, 숏폼 영상 등 4개 부문에 걸쳐 6천 개가 넘는 공모작이 몰렸다.

3



우즈베키스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 논의

K-water 윤석대 사장은 지난 11월 14일 대전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상하수도공사(Uzsuvtaminot) Dilshod Azimov 사장과 만나 우즈베키스탄 물관리 시설 현대화를 비롯하여 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물 분야 협력 파트너로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상호협력 증진과 노후화된 우즈베키스탄의 상하수도 설비 현대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4



K-water 투자펀드의 대전 지역기업 투자 300억 원 돌파

K-water는 지난 11월 15일, 한국엔젤투자협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K-water 출자펀드의 대전 지역기업 투자 300억 원 돌파를 기념하는 '물산업 연계 지역투자 활성화 및 업데이(Meet-Up Day)' 행사를 개최했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이번 계약체결로 35억 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K-water는 2018년부터 자체 자금을 투입해 우량 펀드 조성에 참여하여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연계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5



상생과 민생기여를 위한 물관리 거버넌스 상생협력위원회 출범

K-water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협치 기반의 거버넌스 'K-water 상생협력위원회' 제4기를 출범했다. K-water 상생협력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해결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이다. 제4기 상생협력위원회는 더욱 다양하고 객관성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기존의 물 관련 전문가 그룹 외에도 국민대표와 산업계 등 민생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확대하여 구성하였다.

6



창립 56주년 기념 노사 공동 '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진행

K-water는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창립기념일(11월 16일) 전후 2주간을 '창립 기념 봉사주간'으로 정하고, 'K-water와 함께 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11월 16일에는 구자영 기획부문장과 박기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본사 임직원 등 약 70명이 대덕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사 공동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춰 난방용 연탄 배달, 복지시설·아동센터 환경 개선, 독거노인 방한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영화

3일의 휴가

감독 | 육상호
개봉 | 12월 6일



죽은 지 3년째 되는 날, 복자는 하늘에서 3일간의 휴가를 받아 지상으로 내려온다. 딸의 곁에서 함께 지내며 벌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담은 휴먼 드라마다. 가족 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하며 연말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해숙, 신민아, 강기영 등이 출연한다.

1년 만에 돌아온 오리지널 내한공연, 태양의 서커스. 이번에는 멕시코의 강렬할 태양과 화려한 빛깔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루치아를 선보인다. 투어 최초로 '물'을 도입한 수중 곡예와 나비 날개 의상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 공연은 내년 2월까지 선보인다.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

기간 | 12월 31일까지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



뮤지컬



Divided Skies

기간 | 2024년 1월 6일까지
장소 | 에프레미디스 서울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에프레미디스 컬렉션 특별전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에프레미디스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컬렉션 중 하나다.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독일 미술의 시발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컬렉션 중 엄선된 일부 작품만을 선보인다.

해운대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은 해운대 빛축제. 올해는 특별히 백사장 미디어존을 운영해 더욱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빛 조형물 포토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해운대에서 잊지 못할 연말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해운대 빛축제

기간 | 12월 2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장소 |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광장(구남로), 해운대 시장,
온천길 일원

전시

축제

반짝이는 추억을 수놓은 문화 속으로

다채로운 이벤트가 가득한 연말이 다가왔다. 가족, 연인 또는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줄 문화생활 리스트.

글. 문수민

START UP WATER 2023

제4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대전

12.07 (목)
14:00



인터볼고 엑스코 호텔(대구) 그랜드볼룸 B

LIVE
www.youtube.com/watechtvkwater
※ 실시간 방송 예정이며, 방송을 통해 발표 및 특별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

본행사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최종 발표경연
행사축하공연 및 시상식(18팀)

부대행사 물산업 혁신아이템(기술) 전시부스 운영
국민참여 이벤트 진행
* 유튜브 라이브 시청 인증샷, 퀴즈 이벤트

발표팀

아이디어부문(4팀)	아이템명	사업화부문(4팀)	아이템명
이충호	디지털 도면기술을 활용한 물산업 인프라 시설 및 자산관리 시스템	movements	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표지기 AR 솔루션
고한빈	신개념 graphene/BCN 투명 유연 태양전지를 이용한 녹조 없는 수상 태양광 발전 기술	60Hertz	AI 위성영상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특화 사업성 분석 및 발전량 예측 솔루션
조성현	계량기 생애주기(Life Cycle) 관리 시스템(Flowmeter Maintenance System)	GEOGRID	개발정수기 및 필터가 필요없는 친환경 생활 스마트 빌딩 정수 플랜트_지오리더
윤남희	청소가 필요 없는 물 탱크 및 그 시공방법	FLOWORK	UGV(Unmanned Ground Vehicle) 및 AI 기반의 누수 탐지/관리 서비스

주최: 환경부, K water, KOVA (사) 벤자기업협회

주관: 한국물포럼, 한국물산업협회, KOWA (사) 벤자기업협회

파트너: 특허청, 한국물포럼, 한국물산업협회, STP 창업진흥원,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Startup of the United Nations

문의사항: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 창업혁신부
T. 042-629-2511, 2512
www.startupwater.net



축하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1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11월호 '일회용품 OFF'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12월호 '의류 폐기물 OFF'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지 (010-****-4709)



임선 (010-****-2111)



장오연 (010-****-2698)



이선 (010-****-0881)



강성 (010-****-8440)



송원 (010-****-3212)



정기 (010-****-5280)

🎁 K-water 창립 56주년 수능 이벤트

이벤트 경품 영화 관람권 10명(1인2매 증정)

- 박O조 010-****-0069 | 이O원 010-****-6819
- 임O자 010-****-5435 | 정O옥 010-****-2494
- 이O지 010-****-9688 | 박O영 010-****-0388
- 하O아 010-****-8165 | 유O호 010-****-4135
- 조O순 010-****-5122 | 정O와 010-****-7332

🎁 #kwater우크라이나도시재건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now_gnaz | @_zepeto_papa_ | @pill.cook | @warmcolor7
- @sundew4004 | @100m200me | @saseumi1
- @jjeun.4621 | @parangtomato1 | @jjino0_0



이벤트 선물 발송일 12월 10일경
※ 1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의류 폐기물 OFF 챌린지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옷을 구입하고 쉽게 버리고 있나요? 이번 달만큼은 버려지는 옷을 줄이고, 헌 옷을 고쳐 입거나 리퍼브숍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보아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의류 폐기물 OFF
54페이지의 '오프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버려지는 옷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의류 폐기물 OFF를 실천하고, 위의 방울이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2월 20일 발송일 1월 10일경
※ 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기분 좋은 느낌 가득! K-water와 #소통하기

SNS 오프나
지금 바로 만나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K-water SNS 소식을 한데 모았습니다! 풍성한 SNS 소식 보며 즐거운 연말 되세요!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가을과 겨울 사이, 소양강댐 라이딩 | * 단풍으로 물든 춘천 낭만 자전거길 |
 [K-water X @mindy_cycling]
 자전거의 도시 춘천! 북한강부터 소양강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내내 눈에 들어오는 의암호의 풍경과 울긋불긋한 단풍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짧게 느껴지는 가을이 아쉬웠던 분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소양강댐 라이딩 영상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라이딩 #민디#소양강댐라이딩 #춘천자전거길 #의암호 #소양강댐 #의암스카이워크 #가을라이딩 #단풍라이딩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소식이 방울방울
**My Water
새소식 10월 32호**



정보가 방울방울
**지역별 김치와
재밌고 특색 있는 이색 김치!**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eet



벌써 2023년 지나가고 있다고?
공감하는 수분이를 모여라!
#직장인 #직장인공감 #2023년 #시간 #업무 #돈 #월급 #공감팔 #호를게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방울이가 전하는 소식에 귀 기울여 보세요!



#K-직장인 #공감툰 #오늘도힘내자



#인기폭발 #방울이이모티콘 #일상툰



#겨울이좋은이유 #붕어빵 #요즘대세간식



#리틀방울이 #이름짓기 대잔치 #궁금하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잠들기 전 무심코 마신 음료 덕에 잠에 들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료와 방해가 되는 음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숙면 #숙면도움음료 #숙면방해음료 #물 #우유 #카페인 #탄산음료



GOOD BYE 2023

30명
추첨

GIFT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올 한 해 K-water와 함께 행복하셨나요?
2024년 K-water에게 바라는 점,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 보내주신 메시지는 2024년 1월호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로 참여하기

이벤트 경품 커피&디저트 기프트콘 3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기
 접수 마감일 12월 20일 발송일 1월 10일경

※ 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